

구약논단

제 16권 1호(통권 35집) 2010년 3월 31일

김 재구(협성대) 사무엘, 하나님의 실패한 계획	74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을 세우는 징검다리의 역할로 계획되어진 인물이 아니다. 모세의 시대(출 1-15장)와 사무엘의 시대(삼상 1-8장)를 성서간대화법(Intertextuality)을 통해 비교해 보면 사무엘은 '인간왕권'이 아닌 모세의 시대와 같이 '여호와의 왕권'을 새롭게 확립해야할 인물이었다. 인간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의 사명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Kim, Jae-Gu Samuel, God's Failed Plan	74

사무엘, 하나님의 실패한 계획

김 재구 | 협성대 강사

1. 들어가는 말

사사기는 왕에 대한 기대로 그 끝을 마감하고 있다(삿 17: 6; 18: 1; 19: 1; 21: 25). 왕이 나타나면 이러한 혼란은 곧 사라질 수 있다는 암시를 가득 풍기며 그 끝을 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의 입에서 왕을 세워 달라는 외침이 쏟아져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여러 명의 사사들을 더 거쳐야만 한다(삼상 8: 4-5). 엘리와 그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과 그 아들들이다. 삼상 1 - 8장까지는 아마도 최소한 백여 년의 세월은 족히 흘러갔을 것이라 사려된다. 백여 년의 세월, 그리고 두 가문이 교차하며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계획하신 것일까? 사람들 가슴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왕에 대한 환상을 모르실 리 없을 터인데,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은 보란 듯이 왕이 아닌 사사들을 계속해서 세우신다.

심지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을 조장할 수도 있는 사사기 속에 나타났던 암시적인 단어들을 재사용하기까지 하신다. 사사기에 두 번, 오직 입다의 이야기에만 나타났던(삿 11: 30, 39) **נָדָד**(네데르/서원)라는 단어가 한

나의 기도에서 다시 나타난다(삼상 1: 11).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 이 단어가 한 사람의 일생의 헌신이나 희생과 관련된 경우는 오직 입다의 딸과 한나의 서원을 통한 사무엘의 경우밖에 없다.¹⁾ 그리고 또다시 나실인 서원과 관련된 탄생 이야기가 나타난다. 한나가 기도하며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서원한다(삼상 1: 11b). 그리고 한나는 자신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엘리에게 말한다(삼상 1: 15). 이러한 표현들은 삼손의 탄생 이야기에 나타난 나실인 서원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삿 13: 4, 5, 7, 14). 왕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 이미 악으로 치닫는 시대를 돌이키는 데 실패한 서원(입다)도 실패했고, 대단한 나실인(삼손)도 무용지물이 아니었던가!²⁾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시려는 것인가? 이러한 옛 이야기와 새 이야기가 어우러진 길목에 사무엘이 서있고, 그는 왕이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 그의 진정한 ‘존재 의미’(la raison d'être)는 무엇인가?

이 논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무엘의 위치를 새롭게 조명해 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역사의 전환점에서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는 것이다. 부연설명하자면, 사무엘서를 현재의 형태로 결집한 신명기 역사가는 사무엘을 어떤 인물로 그리기 원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³⁾ 그 방법론으로는 성서간에 언어적인 ‘암시’(allusion), ‘인용’(quotation), ‘공명’(echo), ‘모방’(imitation), ‘풍자’(parody), ‘차용’(borrowing) 등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본문의 신학적인 의미를 밝히는 ‘성서간 대화법’(Intertextuality; Inner-Biblical Interpretation)을 사용한다. 이 문학적 성서 해석법은 차일즈(B. S. Childs)의 ‘정경적 접근법’ 이후로 계속 발전되어 이제는 방대한 양의 연구가 집대성되었다.⁴⁾ 이 방법론을 적용하여 이스라엘의 급격한 변화와 전환

1) נָסַח(네데르/서원)란 단어는 삼하 15장 7-8절에 압살롬과 관련해서 두 번 더 나타나지만 일생의 헌신이나 희생과는 거리가 있다.

2) 김 재구, “입다의 딸,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4(2009), 29-51쪽.

3) 여기서 신명기역사가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의 편집이든 간에 포로기에 신명기부터 열왕기하까지를 현재 형태로 만든 저자 혹은 그룹을 의미한다. R. F. Person, Jr., *The Deuteronomistic School: History, Social Setting, and Literature*,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2).

4) P. Tull, “Intertextuality and the Hebrew Scriptures,” *Currents in Research: Biblical Studies* 8 (2000), 59-90쪽. 특히 이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은 이 방법론의 발전을 말해주기 충분

의 시대를 열어갔던 모세라는 인물과 그에 버금가는 시대를 살아갔던 사무엘을 면밀하게 비교할 것이다. 모세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형적인 비교 패러다임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⁵⁾ 그리고 이 비교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인물의 존재 의미를 새롭게 규명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먼저 사무엘에 대한 긴 세월의 오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사무엘에 대한 오해

대개 사무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다윗이라는 왕이 서기까지의 과도기적인 시기를 담당했던 징검다리 같은 인물로서의 역할이다. 브루거만(W. Brueggemann)은 심지어 사무엘은 물론 사울까지도 다윗을 부각시키기 위한 금박(foils)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삼상 1 - 15장까지는 16장의 다윗의 출현을 기다리는 준비 작업일 뿐이라며, 사무엘의 시대와 그의 존재를 폄하한다.⁶⁾ 렌트토르프(R. Rendtorff)도 사무엘이라는 중간기적 인물의 간접적인 중재를 통해 본격적인 왕의 시대로 변환되어지는 것을 보며,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모세 같은 리더가 아니었다고 단언한다.⁷⁾ 미스칼(P. Miscall)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사의 파노라마인 출애굽기가 그 시작부터 창세기에 약속된 그 계획을 열어갈 인물인 모세의 탄생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왜 사무엘서는 새 시대, 즉 왕조를 열어 가는 인물인 다윗의 탄생과 그의 소명으로 시작하지 않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⁸⁾ 만약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의식이 중요했다면, 그 시대의 어떤 제사장이라도 상관은 없었을 것이다. 굳이 사무엘이라는 나실인을 세워

하다.

- 5) Ch. Ishbell, *The Function of Exodus Motifs in Biblical Narrative: Theological Didactic Drama* (SBEC 52), (New York: The Edwin Mellen Press, 2002).
- 6) W.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Int.),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2 쪽; idem, "1Samuel 1: A Sense of Beginning," *ZAW* 102 (1990), 33쪽.
- 7) R. Rendtorff, "Samuel the Prophet: A Link Between Moses and the Kings," C. A. Evans/S. Talmon(ed.), *The Quest for Context and Meaning: Studies in Biblical Intertextuality in Honor of J. A. Sanders*, (Leuven: Brill, 1997), 27-36쪽; idem, "The Birth of the Deliverer: 'The Childhood of Samuel' Story in Its Literary Framework," R. Rendtorff(ed.), *Canon and Theology: Overtures to an Old Testament Theology*, (Edinburgh: T&T Clark, 1993), 141쪽.
- 8) P. Miscall, "Moses and David: Myth and Monarchy," J. C. Exum/D. J. A. Clines(eds.), *The New Literary Criticism and the Hebrew Bible*, (Pennsylvania: Trinity Press, 1993), 189 쪽. 참조.

그 역할을 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의 탄생 이야기와 성장, 그리고 그의 탁월한 유명세가 중심인 기나긴 이야기를 거론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의문은 그에 대한 수 수계끼를 더욱 가중시킨다. 북 이스라엘의 시작을 열었던 여로보암에게 정통성을 심어준 선지자 아히야는 신탁만으로 그를 왕으로 세웠고(왕상 11: 31), 예후는 엘리사의 이름 없는 생도에게 기름부음을 받고 아합 가문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기 때문이다(왕하 9: 6).

이러한 의문점은 사무엘이 맡았던 여러 중요한 기능의 나열에서 더욱 증폭된다. 가르시엘(M. Garsiel)은 사무엘의 지도력은 그의 탁월한 전임자들인 모세, 아론,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이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리더십이 혼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선지자(삼상 3: 7, 20-21), 사사(7: 6, 15-17), 제의 주관자(7: 9, 17; 9: 12-13; 10: 8; 13: 8-14), 종교적 리더(7: 3-7; 12: 23), 그리고 국가적이며 군사적인 리더(7장; 11: 7; 12: 11).⁹⁾ 이러한 예들은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이 모든 기능을 도맡아 할만큼의 탁월함을 갖춘 비범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풍긴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비교 대상이 있다면, 유일하게 모세가 거론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

그러나 비평학 시대에는 이 문제가 그리 크게 작용할 필요는 없었다. 노트(M. Noth)는 사무엘서가 포함되어 있는 신명기 역사가의 자료 배치에 대해 논술하면서, 이 역사가는 한 전승 군이 끝날 때마다 회고와 전망을 담은 연설을 각각의 지도자들의 입에 담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출애굽 시대는 모세의 고별 연설에(신명기), 가나안 정복 시대는 수 23장의 여호수아의 연설과 함께 마감되고, 사사 시대는 사사기의 마지막이 아닌 삼상 12장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연설로 마감하며, 왕정 시대의 전반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서로 마감된다고 본다(왕상 8: 12-61).¹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삼상 1 - 12장까지는 사사기의 결론 역할을 하며, 사무엘은 아무리 많은 기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사사로서의 생을 살았으며, 마감했다는 결론에

9) M. Garsiel, *The First Book of Samuel: A Literary Study of Comparative Structures, Analogies and Parallels*, (Ramat-Gan: Revivim Publishing House, 1985), 45쪽; J. T. Willis, "Cultic Elements in the Story of Samuel's Birth and Dedication," *Studia Theologica* 26 (1972), 40-54쪽.

10) M. Noth, *The Deuteronomistic History* (JSOTSup. 15), (Sheffield: JSOT Press, 1981), 9쪽.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새 시대, 즉 왕조는 삼상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되는 것이다.¹¹⁾ 결국 왕의 기능보다 더 탁월한 그의 역할들은 노트의 이야기 단락 구분으로 자연스럽게 상쇄되어 버린다.

하지만 노트의 이러한 구분은 사사기가 문학적으로 탄탄하게 자체적으로 설 수 있는 통일성을 보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삼상 또한 전체적으로 사사기와는 달리 중심 인물들의 상승과 하락을 그리는 지그재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논박될 수 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개개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의 상황을 보여주는 서론 부분(the prologue, 1: 1 - 3: 6), 둘째, 대 사사 6명과 소 사사 6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론 부분(the main body, 3: 7 - 16: 31),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정들의 결과를 다루고 있는 결론 부분(the epilogue, 17: 1 - 21: 25)이다.¹²⁾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상승과 엘리 가문의 하락, 다윗의 상승과 사울의 하락이라는 주제를 교대로 반복하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여기는 사무엘과 엘리 가문의 교차만을 제시하기로 한다.¹³⁾

사무엘의 상승	2: 11, 2: 18-21, 2: 26, 3: 1-10, 3: 19 - 4: 1a
엘리 가문의 하락	2: 12-17, 2: 22-25, 2: 27-36, 3: 11-18, 4: 1b-22

스직스자이(S. Szikszai)는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여러 자료들을 구분하고, 각각의 자료 속에서 사무엘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E자료에서는 사무엘이 성소에 헌신된 자, 예언자, 마지막 사사로 나타나며, J자료에서는 선견자로서의 사무엘이 강조되고 있고, L자료는 상당히 소량(삼상 10: 21bβ-27)으로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 제비 뽑는 의식을 진행하는 자로 그려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세 자료 모두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사무엘의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왕을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E: 10: 17-21abα; J:

11) 윗글, 47쪽. 노트는 이스라엘에서 왕정의 출현은 가장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사사 시대가 비록 타락으로 인해 멸망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그 파멸에 대한 책임은 왕정이 떠맡게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12) R. G. Boling, *Judges* (ABC), (Garden City, NY: Doubleday, 1975), 30쪽; B.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254-62쪽; D. W. Gooding,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Judges," *Eretz-Israel* 16 (1982), 70-79쪽; M. Zvi Brettler, "The Book of Judges: Literature as Politics," *JBL* 108 (1989), 395-418쪽.

13) Willis, "Cultic Elements in the Story of Samuel's Birth and Dedication," 38쪽.

10: 1-16; L: 10: 21b β -27).¹⁴⁾

맥켄지(J. L. McKenzie)는 전승 비평적인 입장에서 사무엘이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행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이유는 네 가지의 다른 전승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각각 다른 전승들이 네 명의 다른 사무엘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무엘(priest), 둘째는 예언자로서의 사무엘(prophet), 셋째는 선견자로서의 사무엘(seer),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사로서의 사무엘이다(judge). 그는 결론적으로 진정한 사무엘의 모습은 선지자 그룹을 이끄는 수장인 선견자(seer)로서의 모습이었을 것이라도 추정한다.¹⁵⁾

램지(G. W. Ramsey)는 다양한 학자들이 주장한 자료, 전승, 양식, 그리고 편집 비평적인 입장을 종합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전설이거나 단지 목가적인 이야기일 수 있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무엘은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 그 이유로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무엘을 כֹּהֵן(코헨/제사장)이란 칭호로 부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제시한다.¹⁶⁾ 사울을 만나 왕으로 기름 붓는 선견자 사무엘은 한 이름 없는 선견자의 이야기가 나중에 사무엘의 것으로 치장되어 각색된 것이며, 예언자로서의 사무엘은 마지막 신명기 편집이 있기 전에 예언자 서클에서 손길을 가한 것으로 본다. 사사로서의 사무엘은 삼상 7장 3-17절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블레셋의 침공, 이스라엘을 대표한 사무엘의 부르짖음, 여호와의 구원, 평화와 사무엘의 '다스림'(דָּוָם 사파트/사사의 역할을 하다)이라는 일련의 사건이 사사기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학자들이 주창하는 사무엘의 본래적 모습이 사사로서의 역할임에도, 군사적 구원자인 사사로서의 사무엘은 사사기를 현재 형태로 만든 신명기 사가에 의해 주어진 삽화라고 여겨진다.¹⁷⁾

결국, 비평적인 입장에서 살펴볼 때 진정한 사무엘의 모습은 그 어떤 기능

14) S. Szikszai, "Samuel," *IDB*, (New York: Abingdon, 1962), 201-202쪽.

15) J. L. McKenzie, "The Four Samuels," *Biblical Research* 7 (1962), 3-18쪽.

16) 스티븐 S. 투엘, 「역대상·하」(배 희숙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68쪽. 원제는 S. S. Tuell, *First and Second Chronicles* (Int.), (Louisville, KY: John Knox Press, 2001). 역대기 사가는 레위인과 제사장 직무의 정통성 확립이란 점에서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사무엘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중심적인 가문 출신이라는 신임장이 필요했기에 그를 에브라임이 아닌 레위 지파로 편집시키고 있다(대상 6: 34; 11: 1).

17) G. W. Ramsey, "SAMUEL(Person)," *ABD*, (New York: Doubleday, 1992), 955-56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비평학이 사무엘의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해 그의 다양한 역할을 쪼개어 분리함으로써 그의 탁월함은 빛을 바라게 되었다. 하지만 너무도 분명한 사실은 지금 현재 형태의 사무엘서 속에서 사무엘은 이 모든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것은 잘라내고 어떤 것은 취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다는 점이 본문을 더욱 존중하는 이유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성서 해석에 새 방향을 열어간 문학적인 방법론은 성서 각 권을 문학적 통일체로 놓고 연구하며, 각 권의 구조에 집중하고 나아가서는 성서 서로간의 연결성을 통한 해석을 제시해 왔다. 그 예로 언어적인 유사성, 주제적 연결, 그리고 줄거리의 전개 방식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서로간의 신학적인 연관성을 살피기 시작했다. 더 상세하게 나열하자면 다음의 6가지 정도를 제시할 수 있다: (1) 명시적인 언급, (2) 암시적인 인용과 차용, (3) 유사한 상황 전개, (4) 핵심 단어들과 어구들의 사용, (5) 유사한 이야기 구조, 그리고 (6) 단어 순서, 음절의 연속, 시적 공명.¹⁸⁾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많은 학자들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시도하였다.

구약성서 렘 15장 1절과 시 99편 6절에는 모세와 사무엘이 동일하게 탁월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성서 외 자료인 바벨로니안 탈무드인 *Berakot* 31b와 미드라쉬 *Šemot Rabba* 16장 4절에는 이들의 연관성과 비교가 또한 나타나고 있다.¹⁹⁾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모세와 사무엘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며 사무엘을 '검증된 모세 같은 인물'(a qualified Moses-like figure)로 제시한다.²⁰⁾ 먼저 모세의 탄생과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가 주제적 흐름과 언어적 유희와 함께 비교된다. 그리고 사무엘이 중심 무대에서 빠진 법궤 이야기(삼상 4: 1 - 7: 2)가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과 비교되고, 그 다음은 여호와와 왕권에서 인간 왕조로 넘어가는 상황을 비교한다. 윌리스(J. T. Willis)는 법궤 이야기

18) D. C. Allison, *The New Moses: A Matthean Typ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19-20쪽.

19) W. L. Holladay, "The Background of Jeremiah's Self-Understanding: Moses, Samuel, and Psalm 22," *JBL* 83 (1964), 153-64쪽; Garsiel, *The First Book of Samuel*, 45쪽; Allison, *The New Moses: A Matthean Typology*, 33-35쪽.

20) J. Muilenburg, "The 'Office' of Prophet in Ancient Israel," J. P. Hyatt(ed.), *The Bible and Modern Scholarship*, (Nashville: Abingdon, 1965), 91-93쪽; P. Miscall, *1Samuel: A Literary Reading*,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6), 1-3쪽.

(삼상 4: 1 - 7: 2)의 사무엘의 부재는 다른 이질적 자료의 무분별한 결합이 아닌, 그의 부재로 인해 패배와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을 보이고, 삼상 7장 3절부터 그가 다시 등장하자마자 위기가 해결되는 것을 보이며, 사무엘의 존재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기교로 본다.²¹⁾ 스피나(F. A. Spina) 역시 법궤 이야기에서 사무엘의 부재는 삼상 4장 1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를 끝으로 모세 같은 선지자(신 18: 15)의 신탁이 사라지며 고통의 나락으로 빠지나, 다시 그 말씀을 회복함으로 위기에서 빠져 나오는 의도적인 문학적 구성으로 본다.²²⁾ 그러나 이들의 연구가 가진 아쉬운 점은 사무엘의 전체적인 모습과 역할 속에서(삼상 1 - 8장)의 총체적인 비교를 행하지 못함으로 사무엘의 위대함은 조각난 파편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각 부분의 세밀한 비교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은 비평학 이전이나 이후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을 내리지는 못한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바로의 노예에서 여호와와 왕권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전환을 주도한 새 시대를 열었다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창한 인간 왕권이 주도하는 또 다른 시대를 열어갔다는 평가가 그 결론이다.²³⁾

이러한 아쉬움을 보완하는 작업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로 하비(J. E. Harvey)를 들 수 있다. 그는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삼상 2 - 10장까지의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사경의 이야기와 연계시키며 그 밀접한 연관성을 증명해 나간다. 즉 신명기 역사서인 사무엘상과 사경의 문학적 연관성을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비교하고 있다. 첫째, 사무엘의 탄생과 연루된 엘리 가문과 아론 가문의 비교(삼상 2장: 레 10장; 민 25장), 둘째, 법궤 이야기와 열 가지 재앙의 비교(삼상 4 - 6장: 출 5 - 12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와 왕권 거부와 만나와 관련된 광야에서의 거역(삼상 8장; 민 11장)을 비교, 대조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하비의 결론은 또 다른 아쉬움을 남긴다. 그는 왕이 오기 전에 행했던 사무엘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닌 삼상 2 - 10장의 맛소라 본문(MT)에 나타나고 있는 본문상의 오류로 보이는 점들(corruptions)이

21) J. T. Willis, "Samuel versus Eli," *TZ* 13 (1979), 201-12쪽.

22) F. A. Spina, "A Prophet's 'Pregnant Pause': Samuel's Silence in the Ark Narrative(1Sam. 4:1-7:2)," *HBT* 13 (1991), 59-73쪽.

23) Ramsey, "SAMUEL(Person)," 956-957쪽.

사경으로부터의 의도적인 인용과 암시를 나타내기 위한 문학적 기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²⁴⁾

수많은 학자들을 거쳐왔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사무엘은 다윗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오해는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 있다. 그러나 사무엘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닮아 있다는 인상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세에 버금가는 인물인 사무엘이 왜 다윗이라는 왕을 맞이하는 연결고리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사무엘은 그 자신이 이러한 탁월함을 소유하였음에도 왜 그는 스스로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그런 위치로 올리지 않으셨을까? 이러한 질문들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셨던 바가 있음을 밝혀볼 수 있을 것이다. 왕정이 아닌 다른 무엇을 말이다. 이것은 삼상 1 - 8장과 출 1 - 15장과의 면밀한 문학적 비교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무엘을 통한 계획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시대가 고통받는 한 여인의 절박한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사람들은 왕을 기다리고, 하나님은 헌신된 한 사람을 기다리신다. 한나의 기도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 한나의 부르짖음 안에 이스라엘의 왕을 향한 갈망과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염원이 하나가 되어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삼상 1: 5, 6)라는 동기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삼상 1: 19-20)라는 결과 사이에 나타난다. 이와 같이 한나의 간구는 이미 그 시작과 결론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나의 기도는 간구와 서원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고통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간구), "내가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서원)(삼상 1: 11).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흡사 여호와께서 한나의 서원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 한나는 곧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올린 서원을 철저히 이행하여 그 귀한 아들을 찾을 때 후에 하나님의 전에 나실인으로 드린다. 그리고 한나의 입에서 찬양이 어우러

24) J. E. Harvey, "Tendenz and Textual Criticism in 1Samuel 2-10," JSOT 96(2001), 71-81 쪽.

진 또 다른 기도(**לְבַרְכָּהּ** 티트팔렐/그녀가 기도하다; 삼상 2: 1)가 분출되어 나오는데, 그 결론은 왕에 대한 기대로 마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삼상 2: 10b) 한나는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의 염원을 대표하고 있다.²⁵⁾ 그러나 사무엘은 그 왕이 아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도 긴 시간과 공을 들이셨을까?

이러한 사무엘의 탄생을 모세라는 인물이 탄생할 때의 상황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 유사점들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비교는 사무엘의 중요성을 입증해 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 두 사람의 탄생은 기도하고 부르짖는 어떤 사람(들)의 **גִּתּוּ**(오니/고통)를 해결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출 3: 7, 9; 4: 31; 삼상 1: 11). 이스라엘은 고통으로 부르짖고, 한나는 기도하며 통곡한다. 그리고 그 해결은 동일한 표현인 ‘돌아보시고(**וַיִּרְאֵהוּ** 라아), ‘기억하시느’(**וַיִּזְכֹּר** 자카르)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해 진다(출 2: 24-25; 3: 7; 삼상 1: 11, 19).²⁶⁾ 차이점이 있다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바로로 인해 고통을 당해 부르짖고 있다면, 한나는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로 인해 고통이 깊어진다. 모세가 젖을 뱉 때까지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다가 집을 떠나 바로의 궁에서 자랐다면, 사무엘도 역시 젖을 뱉 후 어머니 한나의 품을 떠나 실로의 성소에서 자라게 된다(출 2: 1-10; 삼상 1: 24-28). 두 사람 다 장성한 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자신을 키워준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게 된다. 모세는 아들 바로와 부딪히고,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을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삼상 1장을 살펴보면 브닌나의 계속되는 격동으로 한나가 아들이 없어 부르짖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를 느낄 수 없다. 신실한 엘 가나는 해마다 실로의 성소를 향한 순례를 계속하고, 제사장 엘리도 견제하고, 그의 뒤를 잇는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별 문제가 없는 듯이 서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삼상 1: 3) 블레셋으로부터 40년의 압박을 받고 있던 삼손이 탄생할 때와 비교한다면 무척이나 평화로

25)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10쪽.

26) Isbell, *The Function of Exodus Motifs in Biblical Narratives*, 115쪽.

운 모습이다. 굳이 나실인 서원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까지 든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된 한 인물이 필요한 절박한 이유는 사무엘이 탄생하고 그가 실로 성소에 드리진 이후에야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나와 엘 가나가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할 때, 드디어 엘리의 아들들의 심각한 상태를 폭로하고 있다(삼상 2:11).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삼상 2: 12)

לֹאֵלֹהִים וְלֹאֵלֹהִים(로-야다 에트-야훼/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불행한 상황이 벌어질 때면 늘 신문의 헤드라인처럼 어김없이 등장한다.²⁷⁾ 물론 이 말은 단지 신에 관한 철학적인 사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실천적인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대한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고기를 제 맘대로 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가장 좋은 부분을 취하려 하고, 백성들이 만류하면 폭력적인 방법으로 빼앗기도 한다. 그들의 죄는 바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이다.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לֹאֵלֹהִים וְלֹאֵלֹהִים 로-야다 에트-야훼)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출 5: 2)고 큰소리쳤고, 여호수아 후에 태어난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לֹאֵלֹהִים וְלֹאֵלֹהִים 로-야다 에트-야훼) 기억상실의 세대였다(삿 2: 10). 그로 인해 그들이 겪은 것은 연쇄적인 재앙의 높이였다. 바로는 ‘열 가지 재앙’으로 여호와를 알아갔고,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반복적인 침공과 억압을 통해 무지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제 엘리 가문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홉사 모세가 여호와를 모르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듯이, 이곳에서는 사무엘이 여호와를 모르는 엘리 가문에 심판을 전하는 전령으로서의 역할을 한다(삼상 3장). 홉니와 비느하스는 여러 차례의 임중한 훈계를 들었음에도 이집트의 바로처럼

27) D. Damrosch, *The Narrative Covenant: Transformations of Genre in the Growth of Biblical Literature*,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1987), 189쪽, n. 7.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창세기-열왕기하까지에서 오직 출애굽기의 바로 왕과 사사기의 여호수아 이후세대인 이스라엘,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이다.

그 마음을 완강히 하여 그 삶의 방향을 고치지 않는다. 흡사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완강히 하심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음이었더라”(삼상 2: 25). 안타까운 사실은 과거에는 이방인이 문제였으나, 이제는 여호와를 모르는 이스라엘이 문제가 되는 시절이 되었다는 것이다.²⁸⁾

열 가지 재앙 이야기, 그리고 사사기의 순환적인 이방의 압박 이야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징계의 심판’과 ‘여호와의 권능’이다. ‘여호와를 모르기’에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역력히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블레셋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것은 죄로 물든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틀림없다.²⁹⁾ 삼상 4장은 징계를 위한 전쟁의 이야기이며, 이 속에서 강조되는 것은 ‘엘리 가문의 죽음’과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김’이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음에도 전쟁에 패했다는 사실은 여호와의 능력에 심각한 오점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엘리 가문의 죽음’과 더불어 거론되어 질 때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타락한 한 가문을 심판으로 멸하기 위해 법궤의 빼앗김도 불사하셨다는 것이다. 흡니와 비느하스가 죽고(삼상 4: 11, 17, 19, 21), 엘리도 죽고(삼상 4: 18, 19, 21),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는다(삼상 4: 20). 일가족 네 명이 한 날 동시에 죽은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겼다(삼상 4: 11, 17, 19, 20, 21, 22). 심판은 이루어졌다. 하지만 언약궤를 둘러싼 여호와의 권능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이 여호와의 권능은 블레셋 진영에서 벌이는 법궤의 활약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법궤 이야기’로 불려지고 있다(삼상 4: 1 - 7: 2). 이 법궤 이야기 속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집트에 내려졌던 ‘열 가지 재앙’ 사건과의 유사성이 발견되는데, 구체적인 나열은 다음과 같다.³⁰⁾ 첫

28) J. Nohmberg, *Like Unto Moses: The Constituting of an Interpretation*,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5), 342쪽.

29) J. T. Willis, “Anti-Elide Narrative Tradition from a Prophetic Circle at the Ramah Sanctuary,” *JBL* 90(1971), 288-308쪽; K. A. D. Smelik, “Hidden Messages in the Ark Narrative: An Analysis of 1Samuel iv-vi,” K. A. D. Smelik(ed.), *Coverting the Past: Studies in Ancient Israelite and Moabite Historiography*, (Leiden: Brill, 1992), 57쪽.

30) J. E. Harvey, “Tendenz and Textual Criticism in 1Samuel 2-10,” 74-76쪽; J. Bourke, “Samuel and the Ark: A Study in Contrasts,” *DS* 7(1954), 96-97쪽.

째, 두 이야기 다 여호와 하나님과 적들의 신들과의 대결 구도를 그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집트의 다양한 신들과 블레셋의 신인 다곤과의 대결이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출 12: 12; 삼상 5: 4). 둘째, 두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광범위하게 **קָרַח**(막게과/재앙)라고 명명한다. 그리고 ‘치다, 공격하다’라는 뜻을 가진 **קָרַח**(나카)라는 동사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출 9: 14, 25; 삼상 5: 12; 6: 4). 셋째, 바로 왕이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현인들과 마술사들과 요술사들을 부르고, 블레셋인들도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재앙을 해결할 길을 모색한다(출 7: 11; 삼상 6: 2). 그러나 바로 왕과는 다르게 블레셋의 조언자들은 바로처럼 결코 ‘마음을 완악하게’(קָבַד 카베드) 하지 말 것을 권면한다(출 7: 14; 8: 19, 32; 삼상 6: 6). 넷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나갈 때에 빈손으로(**בְּיָדָאֵם** 레팜) 가지 앓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신의 퀘를 보내려면 거저 보내지(**בְּיָדָאֵם** 레팜/빈손으로) 말라고 권면한다. 그리고 양쪽 다 금으로 만든 물품들이 주어진다(출 3: 21; 삼상 6: 3). 이 외에도 여러 다양한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두 경우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내지 않고, 억류하고 있음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며, 결국은 보냄으로 해결된다(이스라엘 백성과 법케).³¹⁾ 그리고 열 가지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상징인 ‘모세의 지팡이’가 그 매개체가 되고, 법케 이야기에서는 여호와와 임재의 상징인 ‘법케’가 매개체가 된다. 두 이야기에서 재앙으로 인한 고통의 부르짖음이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출 11: 6; 12: 30; 삼상 5: 10-12), **יְהוָה**(야드-야웨/여호와와의 손)가 승리를 가져오게 했다는 고백이 양쪽에 똑같이 나타난다(출 7: 4; 9: 3; 14: 31; 삼상 5: 6, 9, 11; 6: 3, 5, 9).³²⁾

이상의 비교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비록 법케가 빼앗김을 당했을 지라도 여호와와 권능에는 아무런 흠이 없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유사성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제 적들에 대한 마지막 일격이 남아 있다. 이집트의 바로는 여호와와 권능에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보낸다. 그러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후회하며 곧 바로 전군을 다 소집해 그 뒤를 추격한다(출 14: 5). 그리고 사무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집결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이

31) Nohrnberg, *Like Unto Moses*, 343쪽. 논버그는 블레셋에 억류된 법케를 이집트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32) 김 영진, “하나님의 손(יְהוָה יָדָאֵם)의 신학적 의미,” 『구약논단』 15 (2003), 241-59쪽.

스라엘을 치러 올라온다(삼상 7: 7). 이 두 사건은 동일한 단어로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부르짖음을 표현하고 있다.³³⁾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אָרַךְ יָרֵא) 여호와께 부르짖고(פָּדָה צָרָא)(출 14: 10)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אָרַךְ יָרֵ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פָּדָה צָרָ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שָׁמַר יָשָׁא) 하소서(삼상 7: 7-8)

이 두 사건의 중심에 각각의 위대한 인물이 서 있다는 것이 하나의 희망으로 제시되고 있다. 홍해 앞에 가로막힌 이스라엘에게는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다면, 이제 피할 곳 없는 미스바에는 사무엘이 서있다. 그리고 이들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한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מַבְּרֵחַ 하맘)(출 14: 24)

그 날에(וַיְהִי בַּיּוֹם הַהוּא) 바움 하후)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שָׁמַר יָשָׁא 야샤)(출 14: 30)

그 날에(וַיְהִי בַּיּוֹם הַהוּא) 바움 하후)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מַבְּרֵחַ 하맘)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삼상 7: 10)

이 비교는 동일한 사건의 진행을 보여주며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은 홍해에서의 구원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다.³⁴⁾ 모세 시대의

33) Harvey, "Tendenz and Textual Criticism in 1Samuel 2-10," 76-77쪽.

34) 삼상 12장 16절의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그리고 18절의 "그날에 ...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전한다. 이 표현들은 홍해사건에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출 14: 13)와 "이스라엘이 ...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출 14: 31)는 문장들과 정확히 평행을 이룬다.

구원사의 패러다임이 사무엘 시대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동일한 목표점이 있을 것을 직감해 볼 수 있다. 이제 역사의 정점에 도달할 때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역사는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의 시대라는 과거의 이야기를 되짚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홍해에서의 놀라운 구원의 체험이 이스라엘을 어떤 길로 인도했는가는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그대로 재현해내야 할 역사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두말 할 필요도 없이 홍해에서의 구원 체험은 이스라엘을 찬양의 예배로 이끌었다. 그들은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감격의 예배로 하나님께 응답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으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यो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출 15: 1-2)

찬양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찬양과 예배는 이 최상의 고백과 간청으로 가기 위한 전주곡에 불과하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출 15: 18)라는 소망의 표현이다. 이것은 더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עַל־מַלְכוּת־יְהוָה יִשְׁמְרֵנוּ, 야훼 임로크 레올람 와아드)라는 뜻이다.³⁵⁾ 여기에 사용된 동사 מָלַךְ(말라크)는 “왕이 되다”라는 뜻이며, 왕을 뜻하는 명사형 단어인 מֶלֶךְ(멜레크)가 여기에서 유래된다. 이러한 출애굽기와 사무엘서의 비교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³⁶⁾

35) M. Garsiel, *The First Book of Samuel*, 47쪽; Harvey, “Tendenz and Textual Criticism in 1Samuel 2-10,” 77-78쪽. 이들은 사무엘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왕권 거부를 민수기 11장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불평과 연계시켜 공통점을 연구한다. 하지만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사무엘 시대는 홍해 사건 직후의 상황 이스라엘과 밀접히 연관되며 그 반전이 강조된다. 그 이후로는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천명하고 여호와의 법을 전한다(출 19 - 24장). 사무엘서는 ‘왕을 세우고,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둔다’(삼상 10: 5).

36) Jae-Gu Kim, *The Primary History(Genesis-Kings): A Two-Part Deuteronomistic Historiography*, (Seoul: Emerging Books, 2008), 263-67쪽.

모세의 탄생	여호와를 모르는 바로	열 가지 제앙	홍해	여호와와 왕권이 선포됨(예배)
사무엘의 탄생	여호와를 모르는 엘리의 아들들	법궤 이야기	미스바	?

모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여호와가 왕이 되시는 시대를 이루어냈다.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환상을 꿈꾸며 상상력을 키워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끝내 사무엘을 탄생시키시며 하시고자 계획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바로 모세의 시대를 재현하는 것이다. 사사들이 이루어내지 못한 것, 그 사명이 사무엘의 어깨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미스바에서 홍해 사건의 재현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여호와와 왕권이 울려 퍼지는 찬양과 예배”의 회복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동일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대 반전이 일어난다.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의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의 응답 속에 정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מֶלֶךְ)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삼상 8: 4-5)

이것은 말 그대로 돌발 상황이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이 요청에 대해 당혹스러워 한다. 그가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면, 이것은 자신의 실패를 의미하기에 받아들이기에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말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삼상 8: 6)는 것은 왕조가 결코 하나님의 주요한 회복 프로그램에 속하는 것이 아님을 직감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에서도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 이니라'(מִיָּמִינוּ אֵלֶיךָ מֵאִשׁוּר מִמְּעֹרֶכְךָ/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다)(삼상 8: 7)

위에 공백으로 남겨져 있던 빈칸은 '인간 왕을 요구함'이라는 정반대의 응답으로 채워져 버린다. 왜 이런 반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분출되어 나타나는 것인가? 이유 없는 결과가 없듯이, 사무엘서는 '미스바의 구원 사건'과 '백성들의 왕 요구' 사이에 그 이유를 삽입해 넣고 있다.

사무엘이 늙으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삼상 8: 1-3)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시대를 바꾸고자 하는 사무엘의 염원이 담겨있음에 틀림없다. יוֹאֵל(요엘)은 "여호와와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אֲבִיָּא(아비아)는 "여호와와 나의 아버지이다"라는 장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정 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름이 주어졌음에도 이름을 따라 살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굽히고 있다. 이 속에는 또한 사무엘의 실패가 암시되어 있다. 사무엘이 자식들의 부정을 들었음에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엘리 가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³⁷⁾

4. 인간 왕을 선택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을 왕으로 세우고자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사사들을 믿는 것도, 제사장을 따르는 것도, 또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을 따르는 것도 불안하고 위협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어머함에 따라 상황은 현격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이 신실하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 계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그 열매를 맛보았고, 외부의 적들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 반대 유형

37) Ramsey, "SAMUEL(Person)," 956쪽. 삼상 2장 35절에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고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 약속된 제사장이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자식들을 바로세우지 못한 때문이라 본다.

의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철저한 절망만이 보증되어 있다. 하나님의 손은 오히려 적들의 오른손과 함께 하며(삿 3: 8, 12; 4: 2; 6: 1; 13: 1; 삼상 4: 21),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안전을 위하여 차라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해야 할 골칫거리가 되고 만다(삿 15: 9-12).

이러한 불안은 이스라엘이 지파 체제라는 독립적인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에 의지해 민병대를 조직하여 왕정으로 정예화 된 이방의 군대와 대항한다는 것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된 지 오래다. 그리고 승산도 없어 보인다. 이것이 현실이라면 이제 선택은 하나뿐이다. 지도자의 상태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의 불안정한 안전에 기대기보다는, 늘 상비군을 보유하고, 언제든 지 전장에 나설 수 있는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탁월한 한 인물(왕)에게 의지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사무엘이 인간 왕에 대해 **꺄꺄** (라과호/취하다)라는 동사를 여섯 번이나 사용하며(11, 13, 14, 15, 16, 17절), 그 위험성을 준엄하게 경고한다. 이 '취하다'라는 동사는 오히려 '탈취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이 곳에서는 문맥에 더 어울린다.³⁸⁾ 하지만 이 삼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는 별반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삼상 8: 10-20).

그 이유는 왕이 세워지기 전에도 이미 지도자들이 왕같이 살았기 때문이다.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삿 8: 23)라고 선포한 기드온의 뒤를 잇는 아들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모조리 살육하고 왕으로 등극하여 삼 년을 치리하였고(삿 9: 22), 입다는 최고의 자리인 머리가 되기 위해 전쟁터에 나섰고, 결국 6년 동안 통치했다(삿 12: 7),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민족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20년 동안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는 안하무인의 왕 같은 삶을 살았다. 그리고 사무엘서로 들어오면, 엘리 제사장의 삶 속에는 칭호만 사사요 제사장이지, 그는 이미 왕좌에 앉아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실로 성소와 예루살렘 성전이 법궤를 소장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서기 이전에 그 역할을 실로 성소가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38) 이 단어는 주로 '취하다'와 '탈취하다'의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여기서 '탈취하다, 빼앗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아내를 삼다”는 표현 속에 부드러운 뜻이 내포되어 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꺄꺄 라과호)”(창 6: 2; 38: 2). 그리고 야곱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잃은 에서의 외침 속에 부정적 의미가 나타난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꺄꺄 라과호)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꺄꺄 라과호)”(창 27: 36).

도 그의 위치를 짐작해볼 수 있다.³⁹⁾ 엘리는 그 출현부터 ‘전 문설주 곁 그 의자(כִּסֵּי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삼상 1: 9).⁴⁰⁾ 이 의자는 사무엘에게도 사울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자리이며, 오직 다윗에게만 약속된 것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כִּסֵּי 의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삼하 7: 13). 엘리와 다윗은 이 의자를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특권도 주어져 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영원한(עוֹלָם-עוֹלָם 아드-올람) 인약을 받았기 때문이다(삼상 2: 30; 삼하 7장).⁴¹⁾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 모습에서도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을 때’ 전령이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하고, 엘리가 ‘문 곁 의자에 앉아서’ 초조히 전령이 달려오는 것을 맞이한다(삼상 4: 12-13, 18; 삼하 18: 24).⁴²⁾ 이런 유사점에서 엘리가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은 왕권의 미래를 예시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⁴³⁾ 엘리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든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탈취하는(רָצַח 라와호) 자들이다(삼상 2: 14, 15, 16(2번)).⁴⁴⁾ 사무엘의 아들들도 엘리의 아들들과 다름이 없는 백성들에게 뇌물을 취하는(רָצַח 라와호) 불량자들이다(삼상 8: 3).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왕조가 서기 이전에도 지도자들은 왕에 버금가는 생활로 백성들의 삶을 괴롭게 했다. 왕이라고 해서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 것인가? 어차피 빼앗기는 삶이라면 군사, 정치적으로라도 안전함을 누리 보자는 것이 백성들의 심산이었을 것이다.

39) A. G. Auld, “From King to Prophet in Samuel and Kings,” J. C. de Moor(ed.), *The Elusive Prophet: The Prophet as a Historical Person, Literary Character and Anonymous Artist* (Oudtestamentische Studien Sup. XLV), (Leiden: Brill, 2001), 32쪽.

40) 신명기 역사신학에서 44번에 걸쳐 이 כִּסֵּי 의자/의자, 왕좌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위해 한 번(왕상 22: 19), 엘리사에게 한 번(왕하 4: 10), 엘리에게 세 번(삼상 1: 9; 4: 13, 18) 사용되며 나머지는 모두 왕좌를 뜻한다.

41) Garsiel, *The First Book of Samuel*, 56쪽; Miscall, “Moses and David: Myth and Monarchy,” 191쪽; F. A. Spina, “Eli’s Seat: The Transition from Priest to Prophet in 1Samuel 1-4,” *JOTF* 62 (1994), 67쪽.

42) Auld, “From King to Prophet in Samuel and Kings,” 43쪽. 신명기 역사서에서 오직 엘리 가문과 다윗 가문만이 들은 심판의 경고음이 있다: “내가 한 일(재앙)을 행하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삼상 3: 11; 왕하 21: 12).

43) R. Polzin, *Samuel and the Deuteronomist: A Literary Study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Part Two-1Samuel*,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9), 23, 61-64쪽.

44) “그 사람이 이르기를 만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רָצַח 라와호)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רָצַח 라와호) 하였으니”(삼상 2: 16).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왕정은 고통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손쉬운,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인간의 간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증거 하는데 실패한 지도자들의 무능함에 기인한 것임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비난은 사무엘도 결코 피해갈 수 없다. 모세가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훈련시켜 세움으로 대과업을 완수할 수 있었는데 반해, 사무엘은 후계자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⁴⁵⁾ 모든 화려한 능력을 탁월하게 부여받고 시대를 구원할 인물로 그 탄생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무엘이 모세의 시대를 재현해 내지 못했다. 그에게 주어진 기능들이 다양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역할이 그에게 집중될수록, 그가 이루어야 할 과업은 더욱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결국 하나님의 '신정 통치'라는 계획을 실패로 마감하고 만다. 그 결과로 가장 마지막 선택이 되어야 할 왕정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의 사명은 왕에게로 전이되었다(삼상 9: 16; 12: 12-15).

5. 나가는 말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긴 시간 동안 사사 시대와 왕정을 잇는 중계 역할을 하는 사람 정도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다양한 기능과 역할 - 제사장, 예언자, 선견자, 사사 등 - 은 그가 단순히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 정도라는 것에 의문을 자아낸다. 그 역할이라면 굳이 기적적인 탄생부터 시작하여, 특별한 성장, 소명이라는 기나긴 준비 과정을 거친 이야기를 나열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모세라는 인물의 삶과 수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문은 더욱 증폭된다. 하지만 이 두 인물, 즉 모세와 사무엘의 상세한 비교는 사무엘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규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들은 탄생의 순간부터 유사한 삶의 정황을 가지고 있다. 고통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삶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한나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세와 사무엘이 탄생된다.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을 대적하게 된다. 그리고 그로

45) G. W. Coats, "An Exposition for the Conquest Theme," *CBQ* 47 (1985), 50쪽; N. Lohfink, "The Deuteronomistic Picture of the Transfer of Authority from Moses to Joshua: A Contribution to an Old Testament Theology of Office," L. M. Maloney (trans.), *Theology of the Pentateuch: Themes of the Priestly Narrative and Deuteronom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241쪽.

인해 그 대적들이 재앙으로 고통 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즉 열 가지 재앙과 법궤 이야기는 서로 평행을 이루며 이집트와 블레셋이 재앙의 늪에 빠진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동일하게 공격해 오는 두 적들을 홍해와 미스바에서 각각 마주치게 되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펼쳐진다. 이것은 그 다음 사건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찬양의 예배이다. 이 예배의 절정은 바로 “여호와가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는 여호와의 왕권으로 그 결론에 이른다. 결국 사무엘이 이루어내야 할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 즉 “여호와가 다시 왕이 되시는 세상”인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아간다. 백성들이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거슬러 역행하는 타락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모든 것을 탈취하는 왕이라도 상관없다. 어느 누가 다스리던 동일하게 빼앗기는 것이라면 차라리 정치, 군사적인 안전만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왕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마지막 선택이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고 미루었던 길이었다. 사무엘은 결코 왕을 세우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내어진 인물이 아니다. 다윗을 기다리는 왕조의 연결고리 역할이 그의 사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더욱 커다란 지고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전형적인 패러다임인 모세 시대의 재현이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는 왕에 대한 향수를 일소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신정 통치의 시대를 이룩하는 것이다. 결국, 모세의 시대를 재현하기 위해 ‘모세 같은 선지자’로 모든 탁월한 기능들이 한 몸에 주어졌던 사무엘의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실패한 계획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그리고 왕에게 그 기대가 이어지며 이스라엘에 왕정이 시작된다(삼상 9: 16; 12: 12-15).

6. 참고문헌

- 김 영진, “하나님의 손(מִןּ הַיְיָ)의 신학적 의미,” 『구약논단』 15 (2003), 241-259쪽.
 김 재구, “입다의 딸,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4 (2009), 29-51쪽.
 스티븐 S. 투엘, 『역대상·하』 (배 희숙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 68쪽. 원제는 S. S. Tuell, *First and Second Chronicles* (Int.), (Louisville, KY: John Knox Press, 2001).
- Allison, D. C., *The New Moses: A Matthean Typ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Auld, A. G., "From King to Prophet in Samuel and Kings," J. C. de Moor(ed.), *The Elusive Prophet: The Prophet as a Historical Person, Literary Character and Anonymous Artist* (Oudtestamentische Studien Sup. XLV), (Leiden: Brill, 2001), 31-44쪽.
- Boling, R. G., *Judges* (ABC), (Garden City, NY: Doubleday, 1975).
- Bourke, J., "Samuel and the Ark: A Study in Contrasts," *DS* 7 (1954), 73-103쪽.
- Brettler, M. Zvi, "The Book of Judges: Literature as Politics," *JBL* 108 (1989), 395-418쪽.
- Brueggemann, W., *First and Second Samuel* (Int.),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 _____, "1 Samuel 1: A Sense of Beginning," *ZAW* 102 (1990), 33-48쪽.
- Childs, B. 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 Coats, G. W., "An Exposition for the Conquest Theme," *CBQ* 47 (1985), 47-54쪽.
- Damrosch, D., *The Narrative Covenant: Transformations of Genre in the Growth of Biblical Literature*,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1987).
- Garsiel, M., *The First Book of Samuel: A Literary Study of Comparative Structures, Analogies and Parallels*, (Ramat-Gan: Revivim Publishing House, 1985).
- Gooding, D. W.,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Judges," *Eretz-Israel* 16 (1982), 70-79쪽.
- Harvey, J. E., "Tendenz and Textual Criticism in 1Samuel 2-10," *JSOT* 96(2001), 71-81쪽.
- Holladay, W. L., "The Background of Jeremiah's Self-Understanding: Moses, Samuel, and Psalm 22," *JBL* 83 (1964), 153-64쪽.
- Ishbell, Ch. D., *The Function of Exodus Motifs in Biblical Narrative: Theological Didactic Drama* (SBEC 52), (New York: The Edwin Mellen Press, 2002).
- Kim, Jae-Gu, *The Primary History(Genesis-Kings): A Two-Part Deuteronomistic Historiography*, (Seoul: Emerging Books, 2008).

- Lohfink, N., "The Deuteronomistic Picture of the Transfer of Authority from Moses to Joshua: A Contribution to an Old Testament Theology of Office," L. M. Maloney(trans.), *Theology of the Pentateuch: Themes of the Priestly Narrative and Deuteronom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234-247쪽.
- McKenzie, J. L., "The Four Samuels," *Biblical Research* 7 (1962), 3-18쪽.
- Miscall, P., *1 Samuel: A Literary Reading*,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6).
- _____, "Moses and David: Myth and Monarchy," J. C. Exum/D. J. A. Clines(eds.), *The New Literary Criticism and the Hebrew Bible*, (Pennsylvania: Trinity Press, 1993), 184-200쪽.
- Muilenburg, J., "The 'Office' of Prophet in Ancient Israel," J. P. Hyatt (ed.), *The Bible and Modern Scholarship*, (Nashville: Abingdon, 1965), 74-94쪽.
- Nohmberg, J., *Like Unto Moses: The Constituting of an Interpretation*,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5).
- Noth, M., *The Deuteronomistic History* (JSOTSup. 15), (Sheffield: JSOT Press, 1981).
- Person, R. F., *The Deuteronomic School: History, Social Setting, and Literature*,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2).
- Polzin, R., *Samuel and the Deuteronomist: A Literary Study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Part Two-1Samuel*,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9).
- Ramsey, G. W., "SAMUEL (Person)," *ABD*, (New York: Doubleday, 1992), 955-957쪽.
- Rendtorff, R., "Samuel the Prophet: A Link Between Moses and the Kings," C. A. Evans/S. Talmon(ed.), *The Quest for Context and Meaning: Studies in Biblical Intertextuality in Honor of J. A. Sanders*, (Leuven: Brill, 1997), 27-36쪽.
- _____, "The Birth of the Deliverer: 'The Childhood of Samuel' Story in Its Literary Framework," R. Rendtorff(ed.), *Canon and Theology: Overtures to an Old Testament Theology*, (Edinburgh: T&T Clark, 1993), 135-145쪽.
- Smelik, K. A. D., "Hidden Messages in the Ark Narrative: An Analysis of 1 Samuel iv-vi," K. A. D. Smelik(ed.), *Coverting the Past: Studies in Ancient Israelite and Moabite Historiography*, (Leiden: Brill, 1992), 35-58쪽.
- Spina, F. A., "A Prophet's 'Pregnant Pause': Samuel's Silence in the Ark Narrative (1Sam. 4:1-7:2)," *HBT* 13 (1991), 59-73쪽.

- _____, "Eli's Seat: The Transition from Priest to Prophet in 1Samuel 1-4," *JSOI* 62 (1994), 67-75쪽.
- Tull, P., "Intertextuality and the Hebrew Scriptures," *Currents in Research: Biblical Studies* 8 (2000), 59-90쪽.
- Willis, J. T., "Anti-Elide Narrative Tradition from a Prophetic Circle at the Ramah Sanctuary," *JBL* 90(1971), 288-308쪽.
- _____, "Cultic Elements in the Story of Samuel's Birth and Dedication," *Studia Theologica* 26 (1972), 40-54쪽.
- _____, "Samuel versus Eli," *TZ* 13 (1979), 201-212쪽.

검색어

성서간 대화법
사무엘
모세
여호와의 왕권
인간왕권

투고일: 2010년 12월 7일
심사일: 2010년 1월 19일
게재확정일: 2010년 2월 13일

Samuel, God's Failed Plan

Jae-Gu Kim, Ph. D.

Lecturer at Hyup Sung University
University of Toronto

This paper is intended to reconsider the reason for Samuel's being. As generally believed, the role of Samuel is to connect the gap between the times of judges and kings. Thus, Samuel has been widely ignored by the shadows of various judges and the glorious king David even though Samuel had performed many important functions, such as prophet, seer, priest and judge. The only person who can be matched in these functions is Moses.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true purpose of God through the personage Samuel. For this research, one of the literary approaches so-called 'intertextuality' is employed, by which the close relations of the crucial expressions appearing both in Moses' story(Ex. 1-15) and Samuel's(I Sam. 1-8) are investigated.

In five stages, Moses and Samuel will be compared. First, their births are related to the 'misery' of a person(people) and God's 'seeing and remembering.' Second, these two persons must confront the one(s) who "do not know Yahweh." This ignorance invites the catastrophic disaster, which is the third stage. The stories of the ten plagues in Exodus and the Ark of

Covenant are matched in terms, expressions and storyline. Fourth, the confrontations of the enemies, Egyptians at the Red-Sea and Philistines at Mizpah take place and God defeats them by the same method. Now the history reaches its peak. At the time of Moses, the next stage after being saved at the Red-Sea by God was 'praising God and worshipping Him as King. Thus, divine kingship was proclaimed. Then at the time of Samuel, the people of Israel had undergone the same salvific power of God. Then, it is obvious that they also proclaimed the kingship of God. But astonishingly they asked for human kingship because of the corruption of Samuel's sons. Samuel failed to discipline his sons for demonstrating divine kingship.

Through these literary comparisons, it is apparent that Samuel is not intended to be a bridge figure between judges and kings. Rather, his true role is to reactualize the time of Moses when God was inaugurated as the only King. But Samuel failed and eventually human kings had to come and go. This is why the title of this study is 'Samuel, God's Failed Plan.'

Keywords

Intertextuality
Samuel
Moses
Kingship of Yahweh
Human Kingship